

간접흡연, 천식위험 증가시킨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천식에 걸릴 위험이 최고 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26일 보도했다.

핀란드 직업건강연구소의 마리타 야콜라 박사는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유럽폐질환-호흡기 의학회의에서 이같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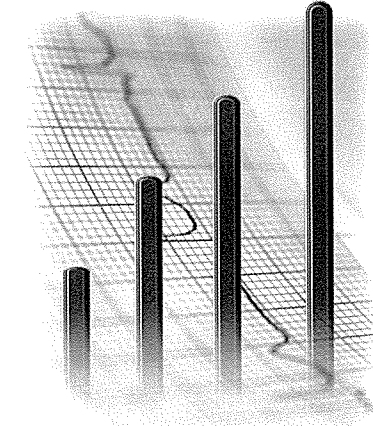
야콜라 박사는 핀란드 남부지역에서 지난 2년반 사이에 천식으로 진단된 환자 231명과 건강한 사람 487명을 대상으로 12개월동안 간접흡연에 노출된 정도를 조사한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야콜라 박사는 집에서 배우자의 흡연에 노출된 사람은 천식위험이 그렇지 않은사람에 비해 거의 5배, 직장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은 호흡기 질환 위험이 2배이상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야콜라 박사는 이 결과는 간접흡연이 성인천식을 유발시킨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간접흡연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보고서들이 발표되었지만 성인의 간접흡연 노출과 성인천식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자료가 발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영국 흡연반대 단체인 '흡연-건강 행동'(ASH)은 간접흡연이 성인천식 위험을 2배이상 증가시킨다는 놀라운 증거라면서 아직도 직장내 금연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일부 기업경영자들에게 경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동아일보 2001.9.28)

10대에 혈압 높으면 30대에 동맥경화 위험

10대 때 수축기혈압(최고혈압)이 높거나 과체중이면 30대에 이르러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네덜란드 우트레히트대학 메디컬 센터의 리디아 보스 박사는 25일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27-30세의 건강한 사람 245명의 경동맥 외피의 두께를 초음파로 측정하고 이를 이들의 13세 때 혈압 및 체적지수(體積指數-BMI: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검사 기록과 연관시켜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동맥은 혈액을 뇌로 공급하는 주혈관이다.

보스 박사는 이들중 13세 때 수축기 혈압이 정상치보다 10포인트 높았던 사람은 30세에 경동맥벽의 두께가 7.7마이크로 미터 두꺼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BMI를 고려했을 때는 경동맥의 두께 증가는 2.9마이크로 미터로 감소했다고 보스 박사는 말했다.

보스 박사는 이는 13세가 되기 전에 혈압과 체중조절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스 박사는 사춘기때의 혈압-체중간의 관계는 나중 성인이 되었을 때 혈압과 체중을 정상수준으로 줄였더라도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덧붙였다. **㉞**

(동아일보 2001.9.27)